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5

다층 분기(分岐)되는 주체와 무너지는 서사 형식 －최인석 작품을 통해본, 포스트모던적 인식론과 방법론 일 고찰－

박 선 경*

요 약

본 연구는 최인석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 설정 및 인식의 변화에 따른 서사 변화를 일 고찰하였다. 이성적 주체 인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체인식(탈모더니즘적 인식)을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 인식을 반영하는 소설은 어떠한 형식(Plot)과 플롯을 고안하는지, 인식 변화에 연동되는 서사구조 변화의 상성(相性)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학과 합리성의 이성적 주체 인식을 부정하고, 허무적 패시미즘으로 일관한다는 특성을 지적하였는데, 포스트모더니즘적 소설의 특성과 시대적 필연성을 시사해 주었다.

최인석의 작품은 기존의 서사방식을 와해시키며, 현실의 혼돈 질서를 통찰하는 것으로 기존 플롯을 차용하지 않으며, 의미나 배경적인 측면에서도 모더니즘적 체제질서가 무너진 카오스적 환경과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의도의 발단, 해결의 교훈, 가치의 결말로 이어지는 기존의 서사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작가는 주인공들의 태생과 환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갈등적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미적 장치 등 의도된 형식과 기존 플롯들마저 허물고 있었다.

또한 주인공들은 서사구조를 이끌어 갈 동력조차 없는 무력한 자아들, 자본 '노예'들로, 이러한 실제 현실의 자아는, 체제를 구성하는 언어나 서

*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사구조에서도 이탈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상 추구의 의도와 교훈적 결말이란 기존 서사방식의 관습적 허구적 결말로 귀속되지 않으며, 자아와 환경에 대한 현실직시, 자본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서 오랜 서사구조의 관습을 벗어나고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 고아로 자라온 주인공들이 오이디푸스적 시기를 안 거치며 욕망의 삼각구조의 작은 자아로 환원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자연 중심의 자아로 성장, 체제 밖에서 체제의 불편부당함을 노출하며 체제에 대한 비관주의로 일관하고 있었다. 체제에서 추방된 그들이 정착된 곳(결말)은 또 다른 허상의 인공적 영토가 아니라 자본체제 하에 '양극화'된 자본 식민지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작가는 거대자본 경쟁체제의 양극화로 치닫는 비인간적 혼돈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해체'되는 길 밖에 없다는 비관주의를 표방하며, 시종일관 무력함과 절망, 더할 수 없이 피폐된 환경과 정서를 보여줌으로써, 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인식과 경향이 해체주의 및 패시미즘으로 일관하는가를 그 실제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동물적 인물 설정으로, 인물들이 처한 환경과 문화, 사유방식이 동물들의 비자본적 환경, 반문화적 생활, 반이데올로기적 본성과 다르지 않다는 작가의 통찰을 주목하였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본, 이성, 중심-체제에 발조차 들이지 못한 세습 무산자들, 배제된 이탈자들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적 합리주의와 과학기계 생산체제에 대해 비판하고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이 비이성의 동물적 주인공, 비자본체제적 동물 환경을 설정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최인석의 작품은 인간과 동물의 존재를 같은 자연으로 인식하며,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등 '중심주의'적 사유를 '반대anti'하고 '넘어서trans'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다. 최인석 작가의 탈인간중심적 카오스의 환경, 탈이성적 인물 설정, 서사기법의 해체, 패시미즘적 인식이라는 요소요소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서사의 지각변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휴머니즘, 해체주의, 패시미즘, 허무주의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1.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는 소설에서 세계인식이나 주체의 인식 등 '인식론'적인 면에서 지각변동과 같은 큰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근자의 소설은 예전에 우리가 소설에서 기대하고 느꼈던 감성과 정(情), 교훈적 가치와 미적 추구를 지향하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인물의 갈등이 흔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전개되며, 교훈과 감성적 미덕 등을 담보하던 소설의 경향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서사구조 역시 그 경계가 희미해졌다. 몇 십년 사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질적 특성이 우리 서사의 의미와 구조에 반영되며, 숫자를 쌓아가던 아날로그식의 감성은 0과 1을 오가는 디지털적 인식으로 비유기화, 비중심화를 향해, '가치'와 '중심'에서 벗어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합리성과 과학성, 이성중심주의에 반기를 들고, 이성적 체제가 만들었던 모든 틀과 경계를 허무는 해체주의적 양상을 띤다. 근대의 동일성의 원리는 합리적, 이성적 '주체'를 상정하며 이성중심, 보편성, 동일성의 상징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동일성의 원리는 그에 대응하는 타자를 배타적으로 인식,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 영혼과 물질, 지배와 피지배, 남과 여라는 이분법적 사유를 하게 된 바, 이성의 '주체'는 다기(多岐)적으로 주변

부와 타자를 소외시키는 이원적 체계를 구성해 왔다.[1]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인간중심적 '로고스'의 주체는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매체철학의 고찰에 의해 그 지배적인 위상이 허상이었음을 끊임없이 지적받으며,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되었다. '주체'란 권력과 사상이 기입된 언어적 상징의 부산물이란 지적과 기존 '주체'는 '팔루스'와 같은 텅빈 기호에 의해 상징체계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그 기반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복수(複數)의 무의식적 욕망이 흐름'을 따른 다기(多岐)한 자아들이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주체'의 변화 및 인식변화를 재현하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현 서사물의 흐름과 향방을 가늠하게 해 줄 것이다.

또 기존의 '주체'가 구축해 왔던 모든 가치와 이데올로기, 보편적 이성, 이성중심의 체계들은 그 근간의 '보편 합리성'을 의심받으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주체 및 체제를 전복하고 해체하는 작업들이 근자의 소설 전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서사물 변화의 원인과 양태를 알기 위해서는 소설의 갈등구조를 추동하는 주인공의 인식과 갈등을 전개하는 행위양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물들은 더 이상 진(소설적 핍진함) 선(도덕적 가치) 미(예술미학적)의 가치 추구와 그것을 담기 위한 형식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2]

---

1)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정신과 구별되는 점은 서구 전통철학이 이룩한 체계로서의 동일성과 일원성을 문제시한다는데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근대가 완성한 동일성에 대한 해체를 주장한다. 동일성과 일원성의 해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며, 이는 곧바로 다원성에의 강조로 이어진다. 동일성과 일원성의 해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며, 이는 곧바로 다원성에의 강조로 이어진다.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3년, 13면.

2) 벨쉬는 후기구조주의의 특성을 계몽주의 이래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한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 서구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플라톤 이래의 이성, 로고스의 전통은 후기근대에 이르

근자의 현대소설은 이러한 주체의 변화(탈주체화)와 그가 보여주는 인식과 표현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변이체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변이는 일회적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대소설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근자의 작품들 대부분은 모더니즘적 동일성의 '중심'체제에 대해 부적응하거나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 설정과 해체주의적 사조는 소설의 인물에 반영되어 다양한 실체들을 보여주고 있다.

'중심'을 향하던 각종 이데올로기와 교훈, 관념적 상징체계의 허구성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무너진 허구와 허위의 잔해들이 뒤엉켜, 무질서와 혼돈으로 뒤덮힌 현실이 소설 전반에 드러나고 있다. 허구로 밝혀진, '가치'의 추구와 예상 추측이었던 지향점을 거두고, 무기력함을 맴도는 공허함이 작품 세계를 채우는데, 이는 모더니즘의 중심 지향성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허무주의로 대체되고 있음을 반영한 예라 볼 수 있겠다.3)

더 나아가 근자의 작품들은 '중심'과 '기존체제'를 벗어난 이탈자들이 이제는 소외된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서민으로 번져가는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데, 탈체제, 탈가치, 탈중심화 해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상황이 투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흩어지는, '주체'들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최인석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성적 주체 인식을 대체하는 주체 인식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변화된 주체인식에 따라 어떠한 서사 방식들이 동원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소설

러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신승환, 앞의 책, 36면.

3) 니체의 허무주의, 패시미즘은 모더니즘, 기독교에 대해 반발하며,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의 기반을 제공하였는데, 허무주의Nihilism은 불교의 Nirvana 즉 공(空)에서 온 용어로 근대의 기독교적 에로스에 반하는 개념이다.

이 주인공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의도된 발단에서 결말의 플롯으로 전개되며 의도된 가치 의미화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포스트모더니즘 인식을 반영하는 소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며 새로운 인식과 내용들을 담아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체 및 인식의 변화에 연동되는 서사구조 변화의 상성(相性) 관계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본 론

1) 체제의 언어 및 서사형식에서 벗어난, 태생적 이탈자

현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글로벌 거대자본 구조로 재편성되면서, 기술집약 산업을 가진 자본 지배자와 자본 식민자의 분포가 양극화를 향해 치닫고 있다. 양극화는 IT발달의 속도에 비례해 빠르게 극소수의 지배층과 대다수의 피지배층으로 재편성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인구는 구조적으로 자본 피식민자나 무산자로 전락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CT산업 및 AI 등 정보융합산업 및 글로벌 금융에 의한 거대자본 체제개편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것인데, 실제 자본생산의 기술혁신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가속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른 생존방식의 변화는 기존 체제의 지반(地盤)을 흔드는 것으로, 많은 대중은 그에 깔리거나 무기력함과 부정성의 블랙홀에 빨려들어 가고 있다.[4] 최인석 작가는 거대자

4) 근대성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 유럽과 제3세계, 계몽된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의 대치점에서 모든 실재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기에 이른다. 근대는 이처럼 철저한 중심부의 사고로 주변부를

본 체제의 의해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력한 공회전으로 소일하는 '무산계급,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1-p.63)를 작품 전면에 내세우며 시종일관 그들을 추적하는, 치열한 작가정신을 선보이고 있다.

> 내가 이수정을 강간하려는 데에는 훨씬 더 유서 깊은 사연이 있다..... 나와 비슷한 천덕꾸러기들, 하층계급, 그녀가 좋아하는 표현을 쓰자면 무산계급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들이니까 말이다.(1-p.63)[5]

최인석 작가의 주인공들 거개가 이러한 체제의 구조적 방외자들로, 그들 대부분은 '이런 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살림살이가 아니다. 이건 세상이 아니다' (≪내 영혼의 우물≫, 3-p.143)라고 외친다. 이 '저주받은 자식' (〈프로와 꽃게〉, 2-p.214)들의 부모는 '죄수, 알거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이, 술주정뱅이, 노름꾼, 한량, 무직자'로 거개가 생산이 없는 무산자들이다. 간혹 생산이 있는 부모라 해도 포주, 청소부, 뱃꾼, 품삯꾼, 술집작부로, 주인공들은 태생부터 원죄를 짐지은 듯 '참혹한 현실'에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고아 같은 이들은 타의적으로 오이디푸스화 시기를 안 거친 채 성장하기[6]에 그들은 아비와 어미에게 환원하는 작은 자아로 귀속되

소외시키는 체제이다. 이분법은 영혼과 육체,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였으며, 나아가 개체와 전체를 구분함으로써 중심부 이외의 것을 타자화한다. 그러기에 서구의 근대가 말하는 보편성은 결국 타자를 배제하는 차별의 보편성으로 작용할 뿐이다.
신승환, 앞의 책, 25면.

5) 이후 작품집은 1,2,3로 나누어 약식표기함
1. 최인석 소설집,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 창작과 비평사, 1997
2. _____, ≪구렁이들의 집≫, 창작과 비평사, 2001
3. _____, ≪내 영혼의 우물≫, Asia Pub, 2013

6) 이미지들의 지배(군림),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분열증을 이용하고 흐름을 횡령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즉 이미지들을 합성하고, 이미지들을 이미지들에 포개

지 않으며, 체제의 각종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본성과 본능의 목소리로 다층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현실적으로 주인공들은 오이디푸스 상징체계의 기반인, 보호자의 기본 돌봄조차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혹은 고아로 자란다. '저주받아, 저주받은 자식'(2-p.214)이며, '노예이기보다는 고아'(2-p.202)로서 '빛 한줄기 없는 깊은 심해에서 퇴화된 눈을 갖고'(〈심해에서〉), 입이 아닌 '아가미'(〈잉어이야기〉)로 숨만 쉬고 살아간다. 심하게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군화발에 채여(〈모든 나무는 얘기한다.〉) 혹은 권력자가 강제적으로 배를 갈라 유산(〈포로와 꽃게〉)시키는 미생(未生)들도 있다. 인물들은 하나같이 '지독한 가난'과 '지옥같은 매음굴'에 버금가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생계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거나 버림받았다. 회복될 수 없는 가난함과 비루함을 대물림함으로써, 미래나 희망, 의지란 개념조차 알지 못한 채, 비참한 환경을 살아간다.

> 아비 어미는 도금공장에 다녔다..... 그들은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어린 나를 작은 셋방 안에 가둔 채 스테인리스로 도금한 커다란 주물 자물통을 방문에 채우고 출근하였다..... 나는 갇혀 있었고, 부모는 나에게는 간수와 같았다. 그러나 나는 불평할 줄도 불편한 줄도 몰랐다..... 나는 어미의 태에 갇혀 있다가 아비 어미의 셋방에 갇히기 위하여 태어난 것과 같았다..... 요강이 넘쳐나 오줌이 흘러내리면.....(<구렁이들의 집>,

---

는 그런 조작이 이뤄지며, 그런 조작이 끝난 뒤 아빠-엄마에 관련된 각자의 작은 자아가 참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리하여 오이디푸스화는 '주체'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그것을 경험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를 고정된 쌍, 즉 오이디푸스화된 장소론적 주체로 환원해 버린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야말로 다양체로서의 경제론적 주체를 억압하며, 단수적(통합적)인 장소론적 주체로 환원한다.
사토 요시유키, 김상운 역『권력과 저항 - 푸코,들뢰즈,데리다,알튀세르』, 도서출판 난장, 2012, 89, 91면.

2-p.17, p.19)

물로 배가 빵빵해지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거북하고 무겁고 아팠다..... 선생님들은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몽둥이로, 삐쩍 마른 내 몸뚱이 이곳저곳에서 잘도 때릴 곳을 찾아냈다. 학교 동무들도 날 가까이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지저분하고 말이 없고 가난했으니까..... 나처럼 지독히 가난한 아이는 없었다. 불행한 아이도 있었지만, 나처럼 극단적으로 불행한 아이는 없었다.(<잉어이야기>, p.65)

아비 어미는 수레에 싣고 더 싼 방을 얻기 위해 낯선 동네로 헤매고 다녀야 했고, 그들의 생활은 무너지거나 망가졌다.(<봉천동, 그 찬란했던 날>, 2-p.231)

위 예문처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주인공들은 거개의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어떠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벌레'이자 '짐승',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 아비 어미는 하루종일 공장에 근무하거나 날품팔이를 해야 하기에 자식들은 버려진 채, 동물의 새끼 정도의 환경, 굶지 않고 울타리 정도의 거주환경에서 삶을 시작한다. '오줌이 넘쳐나고',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싸움'이 난무하는 '지옥'에 머무른 이들이 최인석 대부분 작품들의 인물이다. 그들은 인생 시작부터 '꿈'이나 '힘'을 가져본 적 없고, 구경조차 못해본 환경에 갇혀 '심해, 감옥'을 '식물, 짐승, 심해어'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더불어 '갇혀 있는 것 외에 어떤 삶의 방식이 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 탈주해야할 중심, 기준, 가치마저 알지 못한다. 다만 그들은 덧없고 무의미하고, 무력한 괘적을 그림으로써 허무주의 늪에 끝없이 수렴되는데, 기존 자아 개념이 이미 해체된 상태에 놓여있다.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분열증적 계기로서의 '탈코드화'가 입력된 채 나고 자랐으며, 체제의 분열을 극한까지 보여줄

수 있는 해체된 자로서 존재한다.[7)]

이와 같은 이탈자 주인공 설정으로, 이들은 미적 가치나 교훈적 의미 추구를 위해 갈등 구조를 전개시키지 않는, 욕망추구하지 않는 행적을 보여준다. 무의미와 무가치로 채워진 실재 현실과, 갈등이 중첩된 환경에 갇힌 주인공들에게 허락된 것은 발단-결말에 이르는 갈등 해결 행위가 아니라, 갈등적 현실을 무겁게 짐지고 정태(靜態)에 머무르는 것이다. 주인공들이 겪는 갈등은 태생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저주받은 태생과 참혹한 환경을 벗어날 수 없음이 강조됨으로써, 기존서사의 플롯(갈등 ↔ 해결)[8)]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인간이 자신의 출발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 더불어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시원에 대해서도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이 아무리 진보와 발전을, 문명과 이성을 떠들어봐야 결국은 그 한계 내에서의 일이다. (<포로와 꽃게> p.2-192~3)

> 사회적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왜? 우린 노예로서, 사물로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우린 팔리는 물건이야. 그것도 불량품이라구. (<숨은 길>, 1-p.79)

---

7)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신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만큼, 리좀적 확장 중에 있다. 그러나 료타르가 정리했듯이 Post가 ①이후after, ②반대anti, ③ 넘어서trans 의 의미를 갖으며, 근대의 모더니즘적 사유체계를 지양하거나 반대한다. 포스트휴머니즘, 디지털휴머니즘 등의 근원적 인식이 되기도 한다.
참조;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3년, 11면.

8) Plot은 갈등(Problem)과 그것의 해결(Solution)이라는 소설의 인과성, 필연성 획득을 위한 구성으로, 인과관계는 역순이 될 수도 있고, 결말이 해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흔히 플롯은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소설형식의 오랜 전통이자 담론의 기본구조로 여겨왔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물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적 갈등이 작품들의 주갈등이 되는데, 이것은 시종일관 자본체제의 억압구조와 부정성을 노출하며 기존 플롯의 사고전개의 습관을 허문다. 즉 의도적 발단에서 교훈적 결말로 이어지는 어떠한 의지적 행위나 가치 추구의 전개가 없는 것이다.

니체는 행위의 발단 및 의도와 그 후의 (도덕적)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류가 중요한 편견적 관습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이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갈등을 전개시키는 기존 담론의 구조가 오랜 관습적 편견으로, 우리는 작품에서처럼 우리 삶이 의도대로 뜻과 행위를 펼칠 수 없으며, 결말에서 어떠한 가치나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본, 무력함과 정태상태에 놓인 주인공들에서 우리는 의도적 발단- 교훈적 결말(혹은 판단)이란 기존 서사코드를 벗어나, 탈코드화된 정황을 포착할 수 있겠다. "발단은 아주 명확한 의미로는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사람들은 한 행위의 가치가 그 의도의 가치에 있다는 믿음으로 일치되어 있었다. 의도를 어떤 행위의 발단과 전사(前史)로"[9]보는 것을 니체는 인류의 오래된 선입견, 편견이라 지적하며 일만년 전부터 인류는 그러한 선입견으로, 의도에 대해 도덕적으로 심판하거나 철학적 작업을 해왔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도된 발단으로 도덕적 결말을 형상화하던 서사구조의 인습에 회의를 품을 수 있고, 또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교훈을 판단했던 관습

9) "일만년 전부터 인간 행위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발단"이라는 관점에 도달한 바, 이는 귀족적 가치기준과 〈품위〉에 대한 믿음의 무의식적인 여파로 나온 것이며, 이때부터 도덕적이라고 부를 시대가 도래하였다. 의도가 행위의 모든 발단이 되고, 행위 이전의 모든 역사가 된다는 편견, 거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편견 하에서 도덕적인 찬양이 비난이 판단이 이루어지고, 철학적 연구가 행해져 왔다."
니체, 『선악을 넘어서』, 청하출판사, 58면.
____,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책세상, 니체전집14권, 61면.

적 시선을 성찰할 수 있겠다. 작가의 의도된 발단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도덕적 교훈을 찾아내던 기존서사 구조는 이제 해체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플롯이라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최인석 작가는 태생과 환경 자체가 '갈등'인 현실에 대한 집요한 추적만으로 작품을 형상화하는데, 참혹한 현실묘사에 충실할 뿐 교훈적 결말이나 의도된 갈등 - 해결(플롯) 등의 서사형식을 찾아볼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결말에 이르며 갈등이 해결된다는 오랜 서사적 인식방식을 벗어나 있으며, 현실을 감추는 또 다른 허구를 꿈꾸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주인공의 탈주체, 탈체제화된 모습과, (주체에 기입되어 주체를 구성하는) 체제의 언어와 담론의 구조를 채택하지 않는 작가의 서사적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체 구성의 문제는 주어진 코드들의 "내면화"의 문제가 아니라 발화의, 발언들의 겹겹의 층들, 그것들의 퇴적 작용, 기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상과정'[10]인데, 따라서 탈주체화하는 일은 체제의 언어 및 그 서사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해준다.

>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혁명은 오늘날의 나 같은 자들, 범죄자들, 일탈자들, 건달들, 깡패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혁명에 유해한 존재라고 규정한 룸펜 프로레타리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든 미치광이들, 모든 부랑인들, 모든 일탈자들, 모든 마약중독자와 알코올중독자들이야말로 나의 동지들이다. <u>그들이 열심히 부패하고 열심히 타락하고 열심히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열심히 미치고 열심히 중독되고 열심히 부랑하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영원히 파괴하는 유일한 길이다.</u> (<숨은 길>, 1-p.97)

다음, 최인석의 작품들이 어떤 미학적 추구나 기법도 사용하지 않

10)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도서출판 여이연, 2004, 47면.

음을 주목할 수 있는데, 그의 작품은 소설이 갖는 훈기와 미적 지향, 자아의 실현 등 긍정적인 의지, 정신과는 반대로 패시미즘(Pessimism)적 관점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11] 그의 작품은 어둡고 지옥같은 현실로부터 시선을 떼는 법이 없으며, 자본체제의 폐악과 파멸, 절망의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응시로 체제 이면의 끝을 투시하는 듯하다. 이러한 작업으로 앞서 지적한 서사물의 오랜 관습 - 현실을 외면하고,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이상(진실, 도덕, 미) 추구를 반복하는, 낭만적 허상에 귀결하지 않는다. 최인석 작가는 읽기조차 힘든, 지옥같은 실제 현실을 시종일관 그리고 끝까지 천착하는 작가정신을 발휘하는데, 작가의 의도와 미적 가치, 형식, 주체 등이 모두 해체되어 있고,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는 현실인식, 현실에 대한 진지한 투시만이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주인공들이 겪는 사건들과 갈등적 정황의 기저에는 '돈'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작가의 강박적 저항의식을 짚어낼 수 있겠다. 즉 작품에서 발현되는 의미는 어떠한 형식적 장치도 없이, 단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되는데, 자본구조 및 돈에 의해 지배,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 '응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다.

> 돈, 그것이 다였다. 인간도 정치도 권력도 문화도..... 목표로 하는 것은 돈이었다. 돈 이상의 정의, 돈 이상의 힘, 그것을 뛰어넘는 이상(理想), 그것을 초월하는 권력은 없었다.(<포로와

11) 탈근대의 과제는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유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원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리성'에 대한 요구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위기의 발생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성의 사유체계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었던 다양한 합리성의 모델을 복원하려 한다..... 탈형이상학적 진리모형은 미학 이후의 사유, 탈미학적 사유라는 관점으로 설정된다
신승환, 앞의 책, 43면.

꽃게>, 2-p.194)

> 자본주의 세상의 질서는 사실은 질서가 아니야. 승부, 싸움, 사냥이야..... 모두가 모두에게 적이고 경쟁자고 짐승이야. 우린 모두가 타인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야. 그런데 우린 사냥당할 뿐 사냥꾼으로 나설 기회가 없어. 우린 패배자야. 패배자는 노예야. 형. 봉건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노예였던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노예로 바뀐 것뿐이야. (<숨은 길>, 2-p.78)

위 예문에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더 나아가 주체와 정신까지도 '돈'에 잠식된 실제 현실을 기술하고 있다. 자본체제 환경에서 '돈'은 환경과 세계인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체 및 그의 생존방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자본체제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 작품들 기저에 깔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산자들은 태생적, 환경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을 한계적 경계선으로 가두는 절대자는 '돈'이며, 자본주의 체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틀에서 보자면, 모더니즘적 보편 이성체계가 상정한 주체 정의, 상징체계 등 기존 가치가 해체되며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적 상황만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12] 또 이러한 상황이 자식들로 세습되어, 이 해체적 흐름은 확장일로의 방향성을 가졌다는 점을 감지하게 한다. 그리고 그 심도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본계층화가 삶을 지배하고 결정짓는다는 작가의 통찰을 수긍하게 하고 있다.

---

12) 포스트모던의 조건 (The Postmodern Condition)에서 장-프랑소아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메타서사에 대한 "불신"이라고, 즉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진리, 진보, 자유에 대한 모더니즘의 포괄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Victor E Taylor, Chales E Winquist 외 김용규 외역 *Encyclopedia of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 백과사전, 경성대출판부, 2007, 49면.

2) 피동적 해체자가 거주하는, 자본 양극화의 극지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최인석 작품의 인물들의 특징은 자본경제체제의 피식민자이거나 생산체제의 부품, 노예이거나 체제로부터 이탈된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최인석 작가를 말할 때, 작가정신이 돋보이는 이유는 그의 작품 거개가 읽어내기조차 힘들게, 쇠멸과 황폐함, 파멸의 정서로 채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의 배경, 인물이 처한 환경은 거의 모두가 '더러운, 불결한, 타락한, 부패한, 사악한'(1-p.205) 곳이며 '세상에서 가장 깊고 큰, 가장 참혹하게 굶주린 구덩이라는 것'(1-p.173)이다.

> 선영에게는 이미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이곳 주민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저주받은 곳,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사악한 곳이었다. 모든 악의 뿌리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았다. (<심해에서>, 2-p.176~7)

> '진짜 도둑놈들, 진짜 강도들, 진짜 범죄자들, 진짜 폭력배들이 출몰하는 곳이었다..... 진짜 칼질을 했고, 매춘부들을 놓고 패싸움을 벌였으며, 흔치는 않았지만 살인까지 저질렀다.'(<심해에서>,1-p.169)

> 요강은 그 방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몸뚱이에도 있었다..... 그 요강에는 때로 오줌이, 똥이, 쾌감이, 고통이, 절망과 외로움과 연민과 치욕감이 넘쳐났고, 그 악취는 역겨웠으나, 악취에 그치지 않았으며, 그 악취에 취해 나는, 연이 이모는 서로의 살덩이를 탐했다.(<구렁이들의 집>, 1-p.25)

위 예문에서 보듯이 인물들이 처한 현실은 거의가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사악한 곳"으로 참혹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곳

이다. 작품은 다양하게 이런 수준의 환경에 처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비참하고 참혹한 삶이 이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 대다수 자본 피식민자들의 환경과 삶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가파르게 심화되는 사회 계층화를 보여주는 포스트모던적 소설의 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현실사회를 목도(目睹)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주제가 될 만큼, 현실은 진한 아픔과 절망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러한 현실이 불가항력적인 위압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큰 갈등이라는 점을 직시할 수 있다.

예문에서 보듯이, '저주받고, 가장 참혹하게 굶주린 구덩이'에서 주인공들은 탈주할 수 있는 노자(路資)도, 힘도, 원심력도 없다. 그들은 중심잡을 무게조차 없는 부유물 같은 존재로 태어나 풍파에 따라 허공에 흩날리다, 다시 그 자리에 가라앉는 '먼지의 집적물'(1-p.42)이라 반복, 강조된다.[13]

이러한 강조는 체제와 중심이 왜 해체되고 무너지는지 그 이유이자 근본원인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체제 이탈과 해체는, 인물들이 욕망추구 및 '의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떠받치던 보편자아가 해체되면서 체제와 구조도 더불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해체적 작업은 인물(주체)의 능동적인 행위로 해온 작업이 아니라, 자본체제가 무산자를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기

13) 니체는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합리성과 이성이 인간의 천박한 실제 모습을 외면하게 했다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미화하고 허위로 가장해 왔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니체 사상을 모태로 전개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이 꾸며온 존엄한 권위와 사상, 체계로부터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되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할 것이다. 최인석의 주인공들 모두가 이러한 천박한 실제모습을 드러내는 데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작가정신이 함의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 세상을 깊이 통찰한 사람이라면 인간이 천박하다는 사실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상은)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을 경솔하고 가볍고 거짓되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니체, 『선악을 넘어서』, 청하출판사, chap.59.

존 주체가 해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소외된 자본 피식민자의 수(數)가 다수가 되면서 체제가 무용(無用)화 되며 무너지는 것으로, 탈주체는 해체의 피동적인 대상자이며, 체제에 대한 도전 '행위'가 아니라 불가피한 피해 당사자였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피식민자들의 몸이 머무는 현실은 '오줌, 똥'으로 가득찬 '지옥'이며, 그들은 노예이자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진술에서 기존 인간의 존엄한 지위가 이미 해체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탈이성적, 탈체제적 환경에 노예이자 짐승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인물들은 현실을 초월trans 하여 다층적인 자아로 분기, 탈주의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짐승도, 벌레도, 미물로 잔인성만으로 이루어진 미물로 화했다..... 증오로 발정한 미친 수컷처럼 온종일 수많은 수용자들을 능욕하고 (≪노래에 관하여≫, p.158)

> 저희 집은 지옥입니다. 그 골목 전체가 지옥이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매번 지옥으로 끌려들어 가는 기분이예요. 매번 죽어서 끌려가는 것만 같아요.(<심해어>, 1-p.209)

기존체제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방식이 작가마다 다른데, 다양한 욕망을 추구하며 자발적인 이탈을 감행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기존체제를 비판하며 전복하려는 의지적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최인석 작가가 보여주는 해체작업은 해체의 '대상'과 탈주의 '의미'를 근본적인 원인에 이르며 그 본질까지 통찰한다는 점에서 작가정신이 인정되는 바이다. 즉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는 해체작업과 이탈이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수라(阿修羅) 같은 현실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유영하는 모습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작가는 해체의 방법으로 '스스로 파괴되고 실패

하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1-p.97)이 그 방법이라 서술함으로써[14], 피식민자, 탈주자들은 해체하는 주체가 아니라 해체를 당하는 피당사자라는 실체적 국면을 재현시키고 있다.

또 자본체제를 이탈하여 그들이 정착한 이주지는 또 다른 허위지향의 인공적 영토이거나 체제가 기망해 온 '바람직한 영토'가 아니라, 자본체제의 지상(地上)에서 벌어지는 자본으로 '양극화'한 극지(極地)라는 점을 작가는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고 있다. 자본가와 무산자의 간극은 결코 재결합할 수 없이 분극(分極)화 되어있는 현실을 작품을 통해 반복,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왜 비관주의, 해체주의로 시대인식이 흐르는 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 심해어는 더 조건이 좋은 환경으로 옮겨놓으면 오히려 죽어버린다. 어쩌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해어>, p.2-203)

> 이런 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살림살이가 아니다. 이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버린 곳이다. 버림받은 곳이다. 이건 폐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짐승은 아무도 없다(3-p.143)

최인석 작품에서 '시궁창' 같은 그곳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이 두번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는 '의지'나 '욕망' 추구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임이 드러난다. 작품 〈심해에서〉, 〈숨은 길〉에서 참혹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의지'와 '희망'은 체제가 만들어 낸 환상이자 기망(欺罔)이었음을 알아차

14) 주체는 확실히 탈중심화되어 있는데, 능동적 역량은 '특이성들'로서의 무의식적 욕망 속에 보존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비인칭적 역량의 흐름을 탈코드화하고 해방한다는 원리를 내포한다. 저항의 수단은 자본주의에 내재한다.
사토 요시유키, 앞의 책, 95면.

림으로써 결말은 강간, 방화 등의 '파괴'와 '복수'로 치닫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놓으면 오히려 죽어버린다'는 위 예문처럼, 자본 계층화는 이미 깊이 뿌리내려 그곳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은 오히려 상처만 깊이 되새길 뿐이라는 자조와 체념을 아로새긴다. 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유랑민의 거주지는 체제의 영토 안에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진술된다.

이런 체념과 포기의 부정성이 최인석 작품의 주조(主潮)를 이루는데, 우리는 근자의 패시미즘, 해체주의의 포스트모던적의 조류가 철학적 관념놀이가 아니라, 시대와 세태를 반영한 시대인식이자 철학적 통찰이였음을 알게 된다.

> 그들이 열심히 부패하고 열심히 타락하고 열심히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열심히 미치고 열심히 중독되고 열심히 부랑하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영원히 파괴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파괴자들, 가장 위대한 혁명가들이다. 아무런 이념도 없이, 아무런 음모도 없이, 또는 혁명에 대한 아무런 환상도 이상도 미망마저 없이, 저들을 체제를 그 뿌리부터 뒤흔들어 파괴하는 것이다. 스스로 파괴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숨은 길>, 1-p.97)

> ".....세포막이 사라지면 세포가 붕괴하듯, 국가가 부정되면 세계는 붕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포로와 꽃게>, 2-p.220)

> 나는 내 나름으로 그들이 말하는 혁명의 정체를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만일 저들의 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그리하여 저들이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틀림없이 그 세상에서도 나는 범죄자로 떠돌아야 할 것이요 (<숨은 길>, 1-p.96)

위 예문은 자멸 붕괴에의 의지만이 인물들에게 허용된 욕망이며, 어떠한 '의도'나 '의지'도 체제의 아포리아(Aphoria)로 결코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시사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주인공들 거개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왜 대세를 이루는지, 실제 현실에 대한 묘사와 통찰로 그 이유를 보여준다. 자본 권력은 대다수의 것이 아니며, 인물들은 다만 자본체제의 '임금노예'로 노예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스스로 파괴되고 절멸하는 수밖에 없음을 토로한다. 피식민자에게 허락된 것은 의지, 의도, 개혁이 아니며 노예로서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서술은 현실포기의 인식, 비관주의를 이해하게 한다. '스스로 파괴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체제를 붕괴시키는'(1-p.97)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15] 중심을 잃고 흩어지는 무기력과 무의지, 이것들로 반복적 일상을 채우는 탈주체들의 사연과 그들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극한적 선택의 이유가 작품 곳곳에 재현되어 있다. 이는 현 거대경제의 자본체제는 죽음으로도 거스를 수 없이 굳건한 것이며, 혁명마저도 결코 그들의 지평에 속하지 않기에 파괴주의, 비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도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사회에 살면서 무산자로 살아갈 때, 양극화로의 이동은 자발적인 이주(移住)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며 저항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시종일관 절망적인 현실묘사와 비관적인 서사 분위기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허무주의, 해체주의적 인식이 구체화, 재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 들뢰즈는 마조히즘을 언급하며 언어의 기술과 정의를 지속적으로 그 내부로부터 중지시키고, 질서의 담론을 폐기하는 개념이라 주장한다.
Victor E Taylor, Chales E Winquist 외 김용규 외역, 앞의 책, 369면.

3) 동물적 인물 창조, 주체의 다층 분기

'동일성' 원리의 주체는 타자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며 이원적 상징체제를 구성해 왔으나 '이성적 주체'는 복수적 욕망의 '신체적 주체'에 의해 그 허상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는데,[16] 인간 자아에 대한 이데아적 '주체' 설정은 파쇄되며, 만물의 영장(靈藏)이라는 인간의 존엄한 위상은 현실에 실제하지 않는, 관념적 구호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 대신 형이하학으로 치부되던 실재계의 몸적 자아, 더불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욕망과 본능을 추적하는 작업들이 이어짐으로써 인간 자아는 자연 본연의 실제 모습들을 복원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을 '자연' 중심으로 돌리며, 이성체계의 이념과 관념의 허구성을 직시하게 되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이제 인간과 다른 동물, 또는 식물이나 무생물까지도 연결해 준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우선시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 또는 데카르트적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아닌, 다른 생명체와 동등한 반열에 놓고 본다.'[17] 인간의 형이하학적 동물성은 더 이상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적 모습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열린 자세로 자연과 교류하며 인간을 자연의 본위치로 회귀시키고 있다. '탈근대주의가 요청하는 다른 사유방식은 자연을 더 이상 인간과 대립하는 물질세

---

16)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소쉬르의 관점, 즉 안정된 기호의 결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 진실과 의미를 위한 권위, 본래적 의식으로서 주체/작가라는, 통합된 주체라는 데카르트의 고전적 개념을 비판하였다. 인간주체는 통합된 의식을 갖지 않으며, 언어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후기구조주의는 형이상학과, 인과관계의 개념들, 동일성, 주체의 비판들을 포함한다.
참조; Madan Sarub, *Post structualism and Postmodernism*, The Univ.georgia Press, 1989, 1~4면.

17) 김성곤,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 민음사, 2013, 226면.

계로 객관화하는 대신에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는 체계이다. 그것은 인간을 자연과 대립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연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열린 존재로 받아들인다.'[18]

최인석 작가는 인간의 동물적 측면에 작품의 많은 비중을 할애, 반복적으로 형상화하며 독자적인 서사공간을 마련한다. 그의 동물적 인물들은 예의 작품들처럼 인물이 동물에 비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물을 동물에 대입시키며 인간의 언어를 벗어나, '존재의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인물의 동물화는 초월론적 장의 다양성을 기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즉 '다른 것으로의 생성변화'로, 비인간적 타자의 능동적 저항인 '타자 되기'의 한 방법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들뢰즈, 가타리에게 경제론적 주체는 욕망의 절대적 생산성에 기초한다. 경제론적 주체의 이 생산성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이론화할 길을 연다. 그때 저항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체의 능동성이 아니라 탈중심화된 주체에서의 비인칭적 역량의 능동성이며, 그 귀결로서의 초월론적 장의 다양성, 달리 말하며 '다른 것으로의 생성변화'(타자-되기)이다.'[19]

인간 최초의 상상력이 동물적 상상력(Totemism)이었듯이, 작품들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거나 뱀과 개미들이 되어 땅을 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인물의 동물화를 통해 탈인간적, 동물-되기를 반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이 지향하는 반이성, 반과학성의 자연 회귀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과학과 합리적 이성체제의 비인간적 상황,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희망적 저항과 개선을 포기하고, 현실을 초월, 거부하려는 주체의 다원적인 분열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

18) 신승환, 앞의 책, 51면.
19) 사토 요시유키, 앞의 책, 96면.

① 그(심문관)는 바퀴벌레였다. 나는 내 발톱을 그에게 주었다. 가져가라 시펄놈아,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잉어이야기>, 2-p.100)

② 나는 아비와 어미와 할애비와 할미와 우렁이 서방과 담임이 바퀴벌레와 거미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얻어맞고 걷어채는 것을 보았다. 땅 위를 기는 쥐와 하늘을 나는 쥐에게 빌고 굽신거리고 비명을 지르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다 토굴 속으로 기어들어 바퀴벌레와 거미와 쥐와 박쥐의 영역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일까? (<잉어이야기>, 2-p.101)

①과 ②는 초등시절 국기(國旗)를 그려오는 숙제에 북한 인공기를 그려 들고 다녔다는 죄로 심문을 받는 대목으로, 한 어린 아이의 숙제에도 공권력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공권력의 소환에 힘입어 처음으로 아비 어미와 만나게 되는데, 체제의 권력이 천륜 이상으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비 어미는 간절한 기도로 나를 출산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할비 할미에게 나를 맡기고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다. 치열한 경쟁의 자본체제 내에서 자본의 지배로 가정의 울타리마저 무너진 현실, 이산가족과 이혼, 고아가 증가되는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패권적 자본체제 하에서 가정의 해체, 기아(棄兒), 구조적 고아가 양산되는 현실은 최인석 작가가 다루는 모든 작품의 공통 배경이자 중심갈등, 즉 공통주제가 되는 부분이다. 주인공들은 부모 슬하의 20년의 양육기간과 제대로 된 교육기간을 거치지 못하며 이성적 관념적 사유보다는, 포유류 태생 그대로의 동물적 촉수로 세상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오이디푸스 시기에 욕망의 삼각구조에 의해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의 사유가 동물적인 본능 수준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주체' 해체의

양상이 되는데, 동물이 살아가는 비자본적 환경, 반문화적 생활, 반이념적 본능이 인물들의 그것과 하나로 포개짐으로써 '중심'(자본, 문화,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추방된 피식민자들의 삶이, 인간중심 체제에서 제외된 동물과 같은 처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탈자의 '동물-되기'는 기존 수사법을 넘어서는 고통의 함축적 표현으로, 중심체제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는 세습 무산자들, 배제된 이탈자들의 삶이 동물적 삶과 오버랩되는 것이다.

> 나는 처음 아비 어미를 만나던 날처럼 이제 다시 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물고기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물고기가 되는 그건 옷감을 짜는 곳으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깃발도 펄럭이지 않아 나무가 벌레가 되고 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다시 꽃이 되는 곳..... 그 사이 나의 몸에서는 아가미가 자라고 지느러미가 자라고 비늘이 돋아났다. 옛날 내가 헤쳐나온 물길들이 생각나고, 물은 성큼 나에게 다가왔다..... 나의 지느러미가 퍼덕이고 나의 폐 안에서는 허파꽈리가 다 사라져 그 자리에 투명하고 질긴 풍선 같은 부레가 자리잡았다. (<잉어이야기> p.106-107)

> 마침내 물로 돌아가려는 지금, 내가 뭍에서 산 서른두 해는 아비 어미를 처음 본 날 아비의 종다래끼(통발) 안에 머물었던 잠깐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리고 열달 뒤에 다시 아비 어미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잉어이야기> p.109)

예문은 아비 어미가 출산을 염원하며 잉어를 방사한 댓가로 태어난 내가, 서른 두 해만에 부모를 처음 만나자마자 다시 잉어가 되어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말은 비늘과 아가미가 돋아나며 나는 아비 어미에 의해 다시 바다로 방사되는데, 나의 삶이 잠시 통발에 잡혀있던 잉어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된다. 서른두

해 동안 주인공은 동물 우리(통발) 같은 현실에 갇혔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은, 어떤 의지도, 어떤 욕망추구도 허락되지 않는 이탈자들, 숨쉬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의 체념과 비관을 함축하는 것이다.

작가는 소설집1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에서 '그들은 아직 사람이 아니었다. 이곳은 아직 세상이 아니었다.'(〈카페샤먼〉, 1-p.160) '어딜 가건 우린 아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은 아직 세상이 아니'(〈노래에 관하여〉1-p.153)라는 절망적 판단을 내리는데, 작가는 그 이후 소설집2 ≪구렁이들의 집≫과 장편 ≪내 영혼의 우물≫에서 인물을 동물적 인물로 설정하는, 유의미한 방향 변화를 보여준다.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찬 현실을 배경으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곰 아니면 호랑이'(1-p.155)이고, '이곳은 세상이 아니라 동굴'(1-p.155)이라는 카오스적 인식과, 사람과 동물의 언어를 혼용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물과 동물의 발화를 뒤섞는 것은 인간을 자연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중심주의' 밖으로 내어몰린 하위층들의 절망과 체념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자본주의 세상의 질서는 사실은 질서가 아니라, 승부, 싸움, 사냥이야, 탐욕의 승부..... 모두가 모두에게 적이고 경쟁자고 짐승이야..... 우린 사냥할 뿐 사냥꾼으로 나설 기회가 없어. 우린 패배자야. 패배자는 노예야. 형. 우리가 말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왜? 우린 노예로서, 사물로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우린 팔리는 물건이야. 그것도 불량품이라고 (<숨은 길>, 1-p.79)

위 예문에서 작가는 동물적 인물, 짐승의 혼돈 질서는 '자본주의 세상의 질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 당하는 피식민자는 곧 사냥감인 동물과 다르지 않고, 질서가 아닌 곳에 노예

나 사물로서 존재한다고 피력한다.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자면, 동물화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유에는 과학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거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본체제가 인류를 자본가와 극빈자로 나누어 패배자를 양산해 왔고, 개인 대다수를 자본 노예로 만들어 그들을 배제시켜 왔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겠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강화되어 온 이유가 이성적 합리주의와 과학기계 생산체제에 있다는 비판적 통찰을 마주할 수 있다.

> 그것은 기계로 만들어진 세계였다. 기계와 함께 존재하고 기계와 함께 사라질 세계, 이미 만들어졌으므로, 그리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인간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체의 존재 영역을 확보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세계.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포로와 꽃게>, 2-p.178~9)

포스트휴머니즘적 사유는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주의가 자연과, 환경, 인간에 끼친 폐해를 지적하며 인간세계의 중심을 '자연' 그 본래의 자리에서 찾고자 한다.[20] 이러한 사유는 포유류 인간과 여타 동물들의 자연적 권리를 동등하게 보며, 기존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중심적 이성체제 및 과학의 기계대량 생산체제를 비판하는데, 작가의 동물적 인간의 설정은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적

20)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은 포스트휴머니즘, 디지털휴머니즘 등의 근원적 인식이 되기도 한다.
참조; 신승환, 앞의 책, 11면.
과학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포스트휴머니즘의 진지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인간중심적인 휴머니즘'의 한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합리성, 이성, 자율성, 창조성, 언어능력 등의 고전적인 범주가 배타적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Victor E Taylor, Chales E Winquist 외 김용규 외역, 앞의 책, 64면.

인식, 포스트휴머니즘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인물의 동물화는 현실 초월론적 장을 열며 '다른 것으로의 생성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체제, 자본, 이념의 억압과 지배를 받지 않는 동물-되기는 인간이성 중심주의에 저항하는 타자-되기, 현실을 초월하려는 변신욕망임을 알 수 있다. 탈주체화된 자가 또 다른 주체로 사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을 드러내며, 현실 층위를 뚫고 다른 차원으로 벗어나려는 선택임을 알 수 있겠다.

3. 결 론

본 고는 근자의 포스트모던적 소설이 담아내는, 기존 인식 및 체제에 반(反)하는 해체작업과 이에 따른 전반적 지각변동의 방향을 살펴보며, 좀 더 실체적인 현실 재료(소재)와 다양한 해체작업을 살펴보려는 연구의 일환이였다. 최인석 작가는 '이성적 주체'의 해체 및 탈가치화, 탈중심화하는 흐름을 드러내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었다. 태생부터 해체 당한 주체가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었으며, 의도적 발단과 해결의 결말을 지향하던 기존서사의 형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인물들은 과학과 합리성의 이성적 주체 인식과는 상당히 먼거리에 존재했고, 허무적 패시미즘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소설의 특성과 동괘에 있었으며 해체주의가 대두되는, 그 시대적 필연성을 시사해 주었다.

최인석의 작품은 현실의 혼돈 질서를 담아내는데 몰두하면서, 기존서사의 플롯(원인 발단 전개 해결의 결말)은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이 재현하는 의미나 배경적인 측면에서도 모더니즘적 체제질서가 무너진 카오스적 환경의 패시미즘이 주조를 이루었다. 이는 탈주체 및 인식변화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서사형식의 변동

으로, 기존 언어와 (인식구조를 닮은) 서사체계에서도 벗어나는 과정이었다. 작가의 의도가 담기는 갈등의 발단으로 서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서사의 전개, 서사적 의미를 담으려는 결말 -이라는 서사구조를 차용하지 않았다. 작품은 주인공들이 처한 환경이 처참히 무너진 현실 연출로, 환경 자체가 작품의 주된 갈등으로 작동하며, 기존 플롯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었다. 즉 주인공의 의지나 행위가 사건을 추동하거나 서사전개의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갈등은 인물이 해결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고, 체제 자체가 만연된 갈등상황에 있음이 재현되며, 인물들은 체제의 갈등적 상황에 꼼짝없이 깔려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서사의 전개과정이었다. 서사기법과 구조, 형식이 작동되지 않으며, 자본체제의 양극화된 극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서사는 실재 현실의 엄청난 무게감 전달만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인공들은 서사구조를 이끌어 갈 동력조차 없는 무력한 자아들, 자본 '노예'들로 그들은 극복할 의지도 해체할 힘도 애초에 가져보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지도 모르는 태생적 이탈자들이었다. 진실, 도덕, 미적 추구의 의도나 교훈적 결말이란 기존 서사방식의 관습적 허구성의 굴레를 벗어나, 존재와 환경에 대한 현실직시, 자본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만 일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자아를 통해, 우리가 사용해 온 체제의 언어나 서사형식이 우리의 실재 삶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갈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산가족, 고아로 자라온 주인공들이 오이디푸스적 시기를 안 거치며 상징계로 편입되지 않는 체제 이탈자로 남는 모습은, 양부모가 일터로 향하며, 근자의 이산가족이나 핵가족, 혼족으로 고립되어 자라고, 살아가는 대중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또 이들은 태생부터 체제에서 이탈되며 자연 중심의 자아로 성장, 인간중심체제 밖에서 체제의 불편함과 부당함을 노출함으

로써, 체제에 대한 허무와 비관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해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체제에서 이탈된 인물들을 통해, 자본노예인 대중이 정착한 곳은 더 이상 달콤한 구호적 영토가 아니라 자본체제 지상 위에 펼쳐진 '양극화'된 자본 식민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거대자본 경쟁체제의 양극화로 치닫는 현 시류에 따라, 인물들에 대한 선천적 배제와 이탈은 구조적으로 강요된 것이었으며, 작가는 그 괘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해체'되는 길 밖에 없다는 비관주의를 표방하는데, 무력함과 절망, 피폐된 환경 및 분위기의 재현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해체주의 및 패시미즘적 인식의 그 근본적 유래(由來)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동물적 인물 설정은 최인석 작가 고유의 독자적인 창조물로, 인물들이 처한 환경과 문화, 사유방식이 동물들의 비자본적 환경, 반문화적 생활, 반이데올로기적 본성과 별다르지 않다는 작가의 통찰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물과 동일한 여건 즉 자본, 이성, 중심-체제에서 배제된 자본 피식민자들의 현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성적 합리주의와 과학기계 생산체제에 대한 비관적, 절망적 현실인식의 고통이 동물-되기로 함축되면서, 비이성적 동물적 인물, 반자본체제의 자연환경의 동물로 주체가 분기, 탈주체의 다층적인 분열을 목도할 수 있었다.

또 최인석의 작품은 인간과 동물의 존재를 같은 자연으로 인식하며,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등 '중심체제'적 인식을 '넘어서 trans'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인식을 보이는데, 중심 해체된 - 인물, 인식, 서사기법을 살펴보는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서사적 지각변동을 일부분 경험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대상 작품

최인석 소설집, 『혼돈을 향하여 한걸음』, 창작과 비평사, 1997.

최인석 소설집, 『구렁이들의 집』, 창작과 비평사, 2001.

최인석 장편소설, 『내 영혼의 우물』, 아시아, 2013.

2. 참고 저서

김성곤,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 민음사, 2013, 226면.

니체, 『선악을 넘어서』, 청하출판사, 58면.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61면.

니체, 강수남 역, 『권력에의 의지』, 청하, 1992.

니체, 한기찬 역,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청하, 1992.

니체, 김태현 역, 『도덕의 계보』, 청하, 1992.

마던 사럽, 전영백 역,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조형교육, 2005.

사토 요시유키 저, 김상운 역, 『권력과 저항-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도서출판 난장, 2012, 91, 95, 96면.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3년, 11, 13, 25, 43, 51면

이광래,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민음사, 지식산업사, 1989.

이대희, 『한국의 인식론』, 대영문화사, 1999.

이진경, 『노마디즘』 Ⅰ,Ⅱ, 휴머니즘, 2002.

이화인문과학원,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질 들뢰즈, 가타리, 최명관 역,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 책들, 1997.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인연, 2001.

황정미 편역, 『미셸 푸코, 섹슈얼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5.

Ann Brooks, 김명혜 역,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2003.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도서출판 여이연, 2004, 47면.

G. 레이코프, 임지룡외 역, 『몸의 철학』, 박이정, 2002.

Joseph Allen Boone, *Libidinal Currents - Sexuality and The Shaping of Modernism-*, Chicago UP, 1998.

Vixtor Tayler, *Encyclopedia of Postmodernism*, 김용구 외역,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49, 64, 369면.

Madan Sarub, *Post structualism and Postmodernismm*, The Univ. georgia Press, 1989, 1~4면.

<Abstract>

Multilayered Subject and Collapsing Narrative Formats －A Study on the work of Choi In-seok in Postmodernistic Perception & Methodology－

Park, Sun-Kyoung

The study looked at the nature of the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epic structure, which works to change the subject and perception of postmodernism. Investigate a new self-awareness (Talmo Durnism perception) that replaces rational subject perception. The novel Postmodernism, a reflective novel, looked at what format and plot is designed, and the relationship of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works for changes in perception.

Denying the rational subject of science and rationality, it pointed to the characteristic of consistent passimism, which suggests the figure and the chronological inevitability of postmodernism.

Part of Choi's work breaks down past narrative method, he was designing a plot to order the chaos of reality. in terms of meaning or background, the Passimism of the Caoan environment, where the modernistic system has collapsed, has been evolving. The existing narrative structure is not used. The author was not borrowing the intended format and the group past plot, which was intended by the protagonist's birth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he protagonists were powerless to lead the narrative structure, and they could confirm that the real self-reliance of the real reality is also an escape from the language or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constitutes the system.

The intent of the pursuit, and the moral ending, is not to be haunted by the custom of past narrative method. They were taking away from the long-standing narrative of self-reliance and morality, which was intended as an insight into the environment.

He also pointed out that the characters who grew up in separated families, orphans, grew into natural-oriented self-sufficiency, exposed the discomfort of the system outside of the system, and were consistent with pessimism about system. They pointed out that where they were settled in the system (ending) was not another fictitious artificial territory, but a capital colony that was 'polarized' under capital systems. The author was understanding the decommissioning and passimism of postmodernism by showing the infidelity, desperation, and unequivocal circumstances and emotions.

Animal figures also noted the authors'insight that the environment, culture, and private way of living in the environment, the non-capitalist environment and the anti-ideological nature of the clas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anti-cultural nature of the class. As with animals, they could see the reality of those who were excluded from capital, rational, central- and central-system. The Postmodernistic Reality of Post-Modernist Animal Environment, which is criticized for criticism of rational rationalism and the production system of science and machinery, has established an animal environment for non-capitalist animals.

Key words: Postmodernism, Posthumanism, Deconstructivism, Passimism,

Nihilism

투 고 일 : 2017년 5월 25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